

대한민국-호주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 양해각서 체결

-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친환경 연료공급 환경조성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10일(월) 호주 정부와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이하 한-호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제프 로빈슨(Jeff Robinson) 주한 호주 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 무탄소연료·친환경기술을 활용하여 항만 간 해상운송 전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항로

이번 한-호주 양해각서는 교차 서명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캐서린 킹(Catherin King) 호주 인프라·교통·지역개발·지자체 장관이 양해각서에 먼저 서명한 후 주한 호주 대사가 우리 측으로 전달하였으며, 오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명함으로써 체결이 완료된다.

우리나라와 호주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국제해사기구(IMO)에서의 녹색해운 관련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 ▲친환경 연료공급 환경조성 및 활용 장려, ▲관계기관 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와 호주는 주요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양국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은 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와 호주를 연결하는 녹색해운항로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장	남창섭 (044-200-5830)
	해사산업기술과	담당자	사무관	박인성 (044-200-5834)

□ **추진 경과**

- 한-호주 양국은 국제해사기구(IMO)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이행방안으로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추진 중임
 - 호주 기후에너지환경수자원부-해양수산부 간 업무 협의('23.12, COP28)
 -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MoU 협력사항 실무 논의('24.4, 싱가포르 해사주간)
 - 주한 호주대사-해수부 해사안전국장 간 녹색해운항로 협력 논의('24.5)
 -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MoU 체결 실무 논의('24.10, MEPC82)
- 문안 검토, 최종안 마련 및 양해각서 체결('25.2)

□ **주요 협력사항**

- (녹색해운항로 구축) 양국은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확대 등을 공동으로 노력
- (국제규범 제정 상호협력) 양국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협력하여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
- (친환경 연료공급 촉진) 양국 항만에서 친환경 연료공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항만 간 기술정보 교류 등 협력방안 모색
- (관련기관 간 교류·협력) 녹색해운항로, 친환경 연료공급 및 해양산업 디지털화 등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기관 간 교류·협력 지원

□ **향후 계획**

추진 내용	시기
①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25.上 ~ '26.上
② 경제성·기술적·제도적 타당성 연구 및 로드맵 수립	'26.上 ~ '26.下
③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로드맵 공동 이행	'27.上 ~ '28.下
④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시범 운항	'29.上

* 양해각서 체결 후 호주와의 협의에 따라 추진 내용 및 시기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